세계로

고된 만큼 큰 성취감과 자부심
필리핀에 ‘입소문’ 난 한의원

DR. JYPark 한의원 박주영 원장

해외 의료시장은 면허, 허가, 제도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 더구나 필리핀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낯선 의료 환경으로 개원이 쉽지 않은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한의원을 개원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가 있다. ‘DR. JYPark 한의원’ 박주영 원장의 선택과 경험에 대해 들어보았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마카티에 위치한 ‘DR. JYPark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박주영입니다. 대구한의대학교를 졸업하고 세명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육성수한의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며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고, 이를 기반으로 육성수한의원과의 협업을 통해 필리핀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필리핀 진출을 계획하게 되셨나요?

한의원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한의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민에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린 시절 필리핀 어학연수 경험이 있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가족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인프라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에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나 미신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보며, 한의사로서 올바른 의학 지식을 전달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제공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한의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필리핀에도 침술이나 마사지 위주의 전통 요법, 중의학 기반의 치료가 있지만, 전문성과 체계성 면에서 한국 한의학과는 차이가 큽니다. 현지 침술사들의 교육 과정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하다 보니,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진단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의학은 수년간의 교육과 임상 경험으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에, 현지인들에게 훨씬 더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을 통해 현지인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 복지 향상과 올바른 건강 지식 보급을 위해서도 한국 한의학의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DR. JYPark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DR. JYPark 한의원은 설립한 지 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한의사 1명과 현지 직원 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진료는 주 6일 이루어집니다. 주요 진료 과목은 만성 통증 치료, 한방 다이어트를 통한 체중 감량, 그리고 안면 미용 침 등입니다. 최근에는 환자분들의 만족도 높은 후기와 입소문을 타고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의원을 찾는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주로 미용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은 30-40대 여성 환자분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필리핀의 식습관 특성상 비만 치료를 위해 내원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 외에도 만성적인 통증 관리를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의학 치료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필리핀 내에 중의학의 영향으로 침이나 한약 자체를 완전히 낯설어하지 않는다는 점은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덕분에 생각보다 쉽게 환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의학 특유의 치료 방식이나 한약의 구체적인 작용 기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소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치료 원리와 효과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꼼꼼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진료하시면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필리핀은 가족 중심의 문화와 커뮤니티 간의 유대감이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대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친척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 한 환자분이 치료 결과에 만족하면 온 가족과 지인들을 모두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보다 ‘입소문’의 힘이 훨씬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발휘된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한의원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영어가 공용어이기에 기본적인 진료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환자의 미묘한 증상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깊은 공감이 필요한 순간에는 언어적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현지 직원들이 통역을 도와주거나, 언어보다 더 강력한 소통 수단인 ‘미소’와 ‘친절’로 환자분들께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또한, 더 정확하고 친밀한 소통을 위해 매일 30분씩 타갈로그어(현지어)를 꾸준히 공부하며 환자분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진출을 계획한다면 특별히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현지 행정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느릴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비용 외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관료주의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각오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 교육에 한국에서보다 몇 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의학의 가치를 이해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우선 현재 운영 중인 한의원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킨 뒤 필리핀 내에 분점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지인들에게 무료 건강 강좌를 열거나 의료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필리핀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단단한 각오로 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초기 정착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고 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의학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한의사로서의 자부심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